

## 조선 후기 儒敎와 西學 교류와 갈등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총서 21,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3>

車基眞\*

### I

조선 후기의 西學 연구는 18·9세기의 폭넓은 학문 성향과 변화 과정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분야로, 이 시기의 사상사와 과학·기술사, 천주교회사 연구 등과 깊은 상관성 아래서 진전되어 왔다. 아울러 여기에서는 먼저 동서 문화의 교류라는 커다란 틀 안에서 천주교를 포함하는 서양의 새로운 문화로 인한 학문·사상적 갈등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제시되어 왔다. 다음으로 이에 대한 반응의 결과로 지식층의 천주교 신앙과 서양 문화의 수용 혹은 反西學의 입장에서 斥邪의 논리가 함께 연구되어야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천주교 신앙의 확대 과정에서 드러나는 광범위한 수용층의 성격에 대한 사회사적 접근은 물론 위정자의 탄압 배경도 규명할 필요가 있었다.

본격적인 서학사 연구는 1970년대 후반부터 한국사와 철학사 전공자들에 의해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1980년대에 들어와 일정한 틀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특히 전자의 전공자들은 조선 후기 사상계의 흐름이나 실학 내지는 북학과의 연관성 아래에서 인식의 변화와 새로운 학문에의 개안, 과학·기술사의 진전 등을 설명해 보려는 데 초점을 맞추어 서학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후자의 입장에서는 유학이나 성리학 연구에 바탕을 두고 조선의 철학과 사상에 준 서학의 영향, 새로운 학문 성향과 내용, 유학·서학 상호간의 갈등과 융화를 조명해 보고자 하

\* 良業敎會史研究所 소장, 한국사상사 전공

였다. 이와 같이 교차된 연구는 조선 후기의 서학을 보다 구조적으로 심도 있게 밝혀나갈 수 있도록 해주었다.

물론 서학사 연구는 다른 분야에 비해 비교적 폭이 좁은 탓에 전공자가 그리 많지 않고, 본격적인 연구 기간도 일천한 상태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 관심을 가져온 선학들에 의해 꾸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1990년대 이후로는 새로운 연구자들에 의해 더욱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연구 대상 시기의 폭도 넓어지고, 내용상으로도 질적인 면으로도 훌륭한 평가를 받는 연구 성과들이 발표되어 오고 있다. 그 동안 호교론으로 비판을 받아오던 천주교회사 연구가 지양될 수 있었고, 그 연구 방향이 역사·철학뿐만 아니라 국문학·사회학 등으로 넓혀질 수 있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또 이와 같은 선학들의 연구 노력 덕택에 이제는 서학사 연구가 일정한 틀을 갖추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장태는 특히 철학 전공자의 입장에서 꾸준하게 서학 연구 성과를 발표해 오는 동안 언제나 앞자리에서 후학들에게 모범이 되어 왔다. 1978년에 박사 학위 논문으로 제출했던 연구 과제를 『東西交涉과 近代韓國思想』(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84)이란 단행본으로 간행한 이래 그 연구의 철학적 토대가 될 만한 방계 분야들을 보완 연구해 오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번에 내놓은 『조선 후기 유학과 서학—교류와 갈등—』도 바로 필자가 그 동안에 굴리고 다듬고 고민해 오던 문제들을 정리하여 다시 한 권의 책으로 엮은 것이다.

이 책은 모두 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1장은 조선 후기에 유교와 서학이 교류하고 충돌하는 양상을 개괄해 본 것이고, 제2장은 서학을 본격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데 눈을 뜨게 해줌으로써 조선 서학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해 준 인물인 李瀾의 서학 인식을 살펴본 것이다. 제3~5 장에서는 유교의 이단 배척 논리로 서학을 비판하였던 愼後聃·安鼎福·洪正河의 서학 비판 이론을 점검해 보고자 했으며, 제6 장에서는 서학을 수용한 李檠·丁若鍾·黃嗣永·丁夏祥의 천주교 신앙에 대한 이해와 호교론의 성격을 설명해 보려고 하였다. 제7 장은 서학을 수용하여 유교적 세계관을 가장 풍부하고 창조적으로 해석한 사상가로서 丁若鏞의 事天學과 서학의 요소들을 설명한 것이고, 제8 장은 한말이라는 시대 상황에서 가장 강력하게 서학에 대한 道學의 비판론을 제시한 華西學派의 척사론을 확인해 본

부분이다. 그리고 제9 장에서는 개화기의 유학자 李沂와 프랑스 선교사 로베르 (Robert, 金保祿) 신부가 벌였던 특별한 교리 논쟁을 흥미해 보고자 하였다.

## II

이 책의 내용 중에서 제1장은 총론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제2장과 제3~7장은 제5장에서 설명한 홍정하의 척사론을 제외한다면 星湖學派 안에서 전개되어 나간 서학 비판론과 수용론과의 대립 양상을 학자 개개인의 학문적 이론 위에서 규명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내용상 그 시기는 제6장의 정하상 부분과 제7장 정약용의 서학 인식에 대한 연구를 제한다면, 대체로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에 걸쳐 있다. 그리고 제8장은 19세기 중반에 전개되어 나간, 제9장은 19세기 후반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서학사 연구에 해당한다.

제1장 ‘조선 후기 유교와 서학의 교류와 충돌’에서는 유교·서학의 갈등 문제와 서학 전래의 기반, 조선 정부의 서학 금압 정책, 서학 수용에 따른 쟁점과 영향 등에 관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다. 여기에서 필자는 서학의 전래와 전개 과정을, 첫째 서학 지식의 축적 시기(17세기 초~18세기 중반), 둘째 천주교 신앙 집단의 발생과 유학자의 비판 시기(18세기 후반), 셋째 금교 정책 아래 지하화된 천주교 신앙 시기(19세기 초~중반), 넷째 개화 정책 아래 진행된 유림의 저항 시기(19세기 말) 등 네 시기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아울러 서학 수용의 기반으로, 첫째 사상적 변혁의 요구 상황에서 접하게 된 천주교 교리의 참신성과 서양 과학의 우수성, 둘째 낡은 질서에 대한 개혁 요구에 부응하려는 남인 진보 인사들과 천주교의 평등사상, 셋째 대중이 갖고 있던 새로운 사회 변혁과 신앙에 대한 욕구 등 세 가지 요소로 집약해 주고 있다.

다음으로 필자는 조선 정부가 취한 서학 정책을, 정조대의 회유 정책, 순조 초의 금압정책과 辛酉敎獄(1801년), 현종대의 己亥敎獄(1839년), 고종대의 丙寅敎獄(1866년)으로 나누어 각각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종교 문제로 일어난 옥사’라는 의미에서 ‘교옥’이라는 용어를 특별히 사용하고 있다. 이어 서학 수용에 따른 쟁점으로는 천주·상제에 대한 이해 차이와 자연관, 영혼과 인간관, 윤리와 사회 질서

체계에서 오는 문제를 세계관과 인간관의 대응으로 설명하고, 서학의 영향과 관련해서는 서양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수용 문제를 요약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후자의 수용 문제에서 천주교 신앙과 직접 관련된 내용들이 거론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조선 후기의 서학 연구에서 성호학파의 대중인 이익의 서학에 대한 입장과 인식 성향을 이해하는 것은 거의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필자도 제2장 ‘성호 이익의 서학 인식’을 통해 그가 지니고 있었던 도학과 실학의 병립 구조에 주목하여 이익의 서학 세계를 가늠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익은 서학 지식을 광범위하게 수용하고 補儒論에 입각하여 서학 윤리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해했으면서도 천주교 교리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반면에 그가 서양 과학을 이해하고 수용함으로써 전통적 세계관을 극복할 수 있게 된 것은 서학의 영향에서 얻은 긍정적인 학문적 개인이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후학들에게 서학에 대한 이해와 비판적인 토론의 길을 열어 주었고, 그들이 도학 전통의 세계관을 극복하고 실학의 철학적 기반을 정립해 나가는 데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이익의 서학이 갖는 의의를 찾고 있다.

제3장 ‘遯窩 愼後聃의 서학 비판 이론과 쟁점’, 제4장 ‘順菴 安鼎福의 서학 비판 이론과 쟁점’, 제5장 ‘髯齋 洪正하의 서학 비판 이론과 쟁점’은 攻西派의 성립 과정 안에서 신후담·안정복·홍정하의 척사론이 지니는 위치와 반서학의 이론을 구체적으로 조명해 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우선 필자는 공서파의 성립 과정을, 첫째 천주교 신앙이 전파되기 이전 성호학파 안에서 이루어진 서학에 대한 이론적 비판 단계, 둘째 1784년 이후 信西派의 신앙 활동이 이루어지는 초기 단계, 셋째 1791년의 珍山事件 이후 洪樂安·李基慶 등이 척사를 사회 문제로 확산시키는 시기 등 세 단계로 구분하였다. 동시에 신후담을 첫 번째 단계에서 처음으로 본격적인 비판 이론을 전개한 인물로 설명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안정복의 비판론을 조목별로 검토하면서 李獻慶의 비판론을 소개하였으며, 이어 세 번째 단계에는 홍정하의 서학 비판론에 나타난 특징을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설명은 제2장의 내용과 함께 성호학파 안에서 전개되어 나간 반서학의 움직임을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는 특징이 있다.

여기에서 필자는 우선 비판의 대상이 된 서학의 내용으로, 천주의 개념과 근본

교리의 속성, 서양의 영혼설과 자연관, 윤리와 사회 제도의 모순, 제사 폐지 문제 등이 거론되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신후담의 『西學辨』은 도학 전통의 華夷觀에 터전을 둔 보수적 입장에서 혹은 스콜라 철학과 성리학의 논쟁이란 관점에서 서학을 배척하였지만, 스승 이익과 비교해 볼 때 화이론의 시각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天學問答> 과 <天學考> 를 통해 반서학의 논리를 전개해 나간 안정복은 신후담과 홍정하 사이에서 과도기적 성격을 보여준 인물로, 신서파의 천주교 신앙 활동에 직접 맞서 이를 경계하고자 하였고, 남인 시파의 보위를 위해 초기의 이론적 비판 단계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강경한 서학 비판론을 전개해 나간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홍정하의 경우는 『證疑要旨』를 통해 천주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교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서학서를 가장 논증적이며 근원적으로 비판하였음을 자세히 밝혀 주었다.

제6장 ‘신서파의 유교 문화 인식과 천주교 신앙’은 제7장 ‘茶山의 事天學과 서학 수용’과 함께 서학 수용에 앞장선 신서파의 서학 인식을 규명해 보려 한 부분이다. 필자는 이를 통해 먼저 이벽의 <天主恭敬歌>와 『聖敎要旨』, 『中庸』 해석과 천주 사상, 정약종의 『主敎要旨』, 황시영의 <帛書>, 정하상의 <上宰相書> 에 나타난 교리 이해 내용과 호교론에 대해 설명하였다. 아울러 이들에게서는 서양 과학에 대한 관심과 보유론의 논리를 찾아보기 어렵지만, 새로운 세계관과 서양이라는 국가와 문물, 군사력까지 분명하게 인식한 토대 위에서 내면의 신앙 열정과 한발 앞선 역사·세계 의식을 보여준 것으로 이해하였다.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여기에는 자료 인용과 해석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정약용은 주자학 전통의 의리적 경학이 간과하고 있는 유교 경전의 사천학을 재발견하고, 尹鑰 이래의 사천학을 새로운 차원에서 전개시켜 나가는 한편 천주교 교리와의 조화를 꾀해 나간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를 위해 필자는 정약용의 경학에서 발견되는 사천학의 구조를 설명하고, 上帝·귀신·天命觀, 심성론과 사후 관념에서 발견되는 서학의 요소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해 내고 있다. 동시에 그의 경학 사상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천주교 교리와 불일치하고 있는 요소들이 있다는 점도 제기하면서 천주교 신앙의 자취를 궁구하려는 데만 몰입해서도 안 되고, 이를 전면 부정해서도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는 정약용이 동서 사상에서 합류의 가능성을 찾아 더 큰 사상사의 물줄기를 열어 주었다는 사실을 강조

하기 위한 것으로, 일찍이 정약용의 서학 사상 연구에서 보여준 필자의 독창적인 시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임에 틀림없다.

성호학파의 서학 인식과 함께 서학사 연구에서 자주 회자되는 부분은 華西學派의 서학 비판론이다. 이 책에서는 그 내용을 제7장 ‘화서학파의 서학 인식과 척사론’에서 다루면서 천주교 신앙의 확대 과정에서 드러난 조정의 일관된 억압 정책이 실패하면서 화서학파의 이론적 비판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이들의 도학적 서학 비판론은 한말의 衛正斥邪論으로 발전된다는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여기에서 논거의 자료로 삼은 저술들은 李恒老의 <論洋教之禍>(1836년)와 <關邪錄辨>(1863년)을 비롯하여 李正觀의 <關邪辨證>(1839년), 金平默의 <關邪辨證記疑>(1847년), 柳重教의 척사론 등이다.

화서학파에서는 철저히 도학과 윤리 규범론의 전통 위에서 서학의 과학 기술은 물론 천주나 영혼설과 같은 천주교 교리까지도 形氣에 근거를 둔 열등한 것으로 배척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비판하는 서학의 윤리관 通色 과 경제관 通貨 도 결국에는 금수의 이단 사설에서 나온 것으로, 의리가 아닌 利慾을 추구하는 데서 나온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그들이 보기에 서양이 우리나라에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재앙뿐이며, 이와 같은 배타적 인식은 서양 세력에 대한 위기의식과 맞물려 華夷論에 입각한 척사론 내지는 禦洋論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 책에서는 화서학파의 이러한 논리가 강한 위기의식에 대한 각성을 바탕으로 국가의 자주 의식을 고취시킨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중화주의를 탈피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유교 질서와 도학의 정통을 지키기 위해 폐쇄적이고 방어적인 태도에 머물렀다는 한계성을 드러낸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제9장 ‘海鶴 李沂와 불인 신부 로베르의 유학·서학 논변’은 1886년 이후 전교의 자유가 이루어지고, 척사론이 시대 조류의 대세에서 소외되어 가는 시기에 이루어진 재야 유학자와 프랑스 선교사 사이의 교리 논변을 다룬 부분이다. 이를 통해 필자는 보유훈적 교리서인 『聖教理證』의 내용을 둘러싸고 전개된 천주의 명칭, 제사(崇祖儀禮) 문제, 천당지옥설, 영혼의 사후불멸설 등에 대해 주고받은 토론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보유훈에 입각하여 교리를 설명해 나간 예수회 선교사들과 달리 파리 외방전교회 선교사는 初儒의 입장에 서있었다는 점, 전교의 자유기에 하나의 교리서를 두고 일어난 논쟁이었다는 점, 당시의 유학자와

선교사 사이에는 서로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는 하였으나 상호 폐쇄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그 논쟁의 의미로 꼽고 있다.

### III

유교와 서학과의 만남과 갈등을 이해해야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필자는 그 이유를 전통의 계승과 근대적 전환을 함께 밝히는 데 있고, 당시대의 지식인들이 세계와 인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상을 어떠한 방향에서 제시하였는가를 이해하는 데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이러한 작업은 두 사상이 만남을 통해 어떠한 가능성을 드러내고 한편으로 어떠한 한계에 빠져 있었는지를 가늠해 봄으로써 우리가 열어가야 할 전통과 근대의 창조적이고 조화로운 만남의 길을 찾아가는 데 중요한 시사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이 책에서는 그러한 원시안적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기본 시각으로, 전통 유학 내지는 주자학 즉 道學으로부터 이탈하는 다양한 사상 조류의 하나로 서학을 바라보고자 하였다. 기존의 연구자들에 의해 脫朱子學 혹은 脫性理學으로 설명되어 온 학문 성향과 궤를 같이한다고 보여진다. 아울러 필자는 그 이탈의 중심에 있는 조선 후기의 실학과 서학과의 교류는 천주교 교리와 서양 과학의 양면에서 해명될 수 있고, 반면에 조선 후기의 도학과 서학은 처음부터 충돌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는 데서 연구를 시작하였다. 책의 부제를 ‘교류와 갈등으로 붙인 이유도 이 때문일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구조적인 틀에 초점을 맞추고 책의 내용에서는 각 부분별로 철학적인 분석과 이해를 시도하였으며, 상호 연관성 아래에서 조선 후기의 유학과 서학 사이의 갈등을 설명해 보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무엇보다 먼저 이 분야의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방향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다. 또 필자의 풍부한 자료 해석과 능력을 바탕으로 철학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이해시켜 준 점도 후학들의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각 주제의 마지막 절을 결론으로 마무리하지 않고, 해당 주제가 지니고 있는 성격과 의미, 특성과 한계 등을 설명해 줌으로써 읽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 것도 특별히 지적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는 필자가 앞서 내세웠던

연구의 목표를 위해서도 필요한 설명이었다.

이렇게 볼 때 필자의 연구 결과나 방향에 이의를 달 만한 문제점은 별반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앞으로의 보완 연구나 새로운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서 한두 가지 사족을 덧붙여 보고 싶다.

우선 서학의 전래와 전개 과정을 나눈 시기 구분의 문제이다. 필자는 이를 모두 네 시기로 구분하고 있는데, 세 번째의 ‘금교 정책 아래 지하화된 천주교 신앙 시기’를 제외한 나머지 시기는 서학과 관련된 사상적 측면이 강한 데 비해 이 세 번째 시기는 천주교 종교 운동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서학 수용의 기반에 있어서는 어떠한 대중의 욕구가 천주교 수용의 기반이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필자는 신유교육의 배경으로 교세의 확산, 당쟁의 갈등, 국제 분쟁의 위협을 들고 있는데, 이는 신유교육만이 아니라 기해교육과 병인교육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 생각된다.

다음으로 자료 인용과 해석상 작은 문제들이 엿보인다. 우선 ㉔장에서 거론한 天真菴·走魚寺 강학회 문제이다. 그 동안 이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 왔고 현재는 그 개최 시기(1779년), 장소(주어사), 참석자, 강학의 성격 등에 대한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된 상황이다. 또 이 강학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蔓川遺稿』의 인용에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승훈의 문집이라고 전하는 이 『만천유고』에 대한 서지학적 고찰이 아직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안에 수록되어 있는 <천주공경가>는 물론 필자가 이벽의 저작으로 인용한 『성교요지』의 저작성 문제도 다시 한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이 책의 저술 의도와 내용에 비추어볼 때 아주 사소한 것 이어서 조금도 본질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 그만큼 필자의 연구 성과가 조선 후기의 서학사 연구에서 갖는 위치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책 또한 앞으로 이 분야의 이해를 심화시켜 주는 데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조선 후기 철학·사상사 연구가 일보 진전하는 데도 일정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필자의 더 많은 연구 업적이 세상에 공개됨으로써 서학사 연구가 일보 전진하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